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오현희** · 김현진***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거주 일반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728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척도, 가족의사소통 척도,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 모두 가족 의사소통을 매개로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이는 결국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도 가족 의사소통을 높임으로써 결국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과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극복 프로그램의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부·모애착, 가족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 본 논문은 2013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hjinkim71@iscu.ac.kr

I. 서 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세계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는 편의성의 이면에 중독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중독의 개념이 약물 등의 물질중독의 개념을 넘어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등 비물질중독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도 치료와 개입이 필요한 비물질적인 행동중독으로 판단되고 있다(김동일 등, 2012).

그 중 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장애(IAD: Internet Addiction Disorder), 병리적 인터넷 사용(PIU: Pathological Internet Use),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 웹 바홀리즘(Webaholism)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Young, 1996a: 전종수, 고영삼, 엄나래, 2012에서 재인용).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인터넷 기능, 앱 사용,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의 보다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정보 공유, 학업 또는 업무, 사회적 역할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에 그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중독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중독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박용민(2011)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강희양과 박창호(2012)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의 장애라고 정의한다. 스마트폰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해당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증상을 보이며, 신체적으로도 눈의 피로나 어깨·등·손가락 등의 근육통, 신경계 장애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주영 등, 2011).

특히 이들 미디어의 중독은 상대적으로 충동 억제와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 중독자는 7.7%에 이르고 있는데 상담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1.7%로 나타났다. 그중 청소년 중독률은 10.4%로 2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종수 등, 2012). 앞으로 학업의 과정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어린 연령층이 미디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생

각할 때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85.1%와 83.7%(교육부, 20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서울특별시와 강북·성북 지역의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실태 및 중독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독사용자군은 5.9%이었으며, 이들은 평일에는 평균 7.8시간, 주말에는 평균 9.8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3).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사용자군의 평일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조사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에 집중되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인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연구된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은 크게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인변인과 가족 및 학교를 포함하는 환경변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중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 통제력 상실, 충동성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김종범(1999)에 의하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자존감은 낮았고 공격성, 외로움과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집단에서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김현우, 신수경, 2001; 조민자, 2011),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원영, 199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역시 불안과 우울,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3;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조현옥, 201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개인 심리 변인이 아닌 가족 관련 변인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중독과 관련된 주요 개인 심리 상태인 우울이나 불안, 충동성, 자기통제력 및 기본적인 욕구 불충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서의 문제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성수, 2013). 즉 가족 내에서의 관계가 개인의 성격 형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족변인으로 먼저 부모애착을 들 수 있는데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Bowlby, 1958: 김서현, 2012에서 재인용).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이를 안정 애착이라 하며 애착 대상에 대해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한다(Holmes, 1992: 옥정, 1998에서 재인용). Bowlby(1982)는 애착대상과 반복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기와 타인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발달시키는 것을 내적 작동 모델(Bowlby, 1982: 김서현, 2012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였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에 따라 성격구조와 통합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전 생애 발달 과정을 통해 사회 및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유성정, 박승리, 황매향, 2010).

김민정(2012)은 청소년에 있어 개인 심리적인 요인뿐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따라 건강한 성장을 하거나 문제행동, 특히 중독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은영(2008)은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적을수록 휴대폰의 몰입적 사용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가 크고, 휴대폰의 강박적이고 쾌락적인 사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해경(2008) 또한 휴대폰 과다사용집단은 비과다사용집단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소외감이 높은 불안정한 집단이었다고 보고했다. 부모의 애착이 낮은 만큼 휴대폰을 통하여 신뢰할 만한 애착대상이나 활동을 구하고자 하므로 청소년 휴대폰 과다 사용의 원인으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결여를 들 수 있다(최영아, 2011). 결국 부모와의 애착경험은 청소년의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휴대폰 과다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혜선, 강차연, 2007).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가족변인으로 가족 간에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원래 “공통” 또는 “공유”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communis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

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을 ‘공유’ 또는 ‘공통화’하는 행동이다(윤지호, 2010). Satir(1972)는 의사소통을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과정으로 서로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언어적 과정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과정도 중요하다고 여겼다(Satir, 1972: 윤지호, 2010에서 재인용).

기존의 의사소통은 면대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컴퓨터의 등장으로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이 다양해지고 있다.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omputer Media Communication, 이하 CMC)이 새롭게 등장하여, 비인격적인 매체(Walther, 1996)를 통한 의사소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통신 안에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은 소통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현진(1996)은 면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비공개 매체인 CMC를 상호작용 욕구충족의 통로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 규칙, 역할, 관계 등을 규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하고, 이후 사회라는 보다 큰 공동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인간으로 준비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김정화, 2002). 그러나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부모 자녀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또래 관계에 열중하게 되는데, 이때 매체를 통하여 소원해진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매체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발달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모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그로 인한 대안적 의사소통 매체에 몰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만하지 못한 가족 내 의사소통은 중독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길과 김창대(2003)에 의하면 가족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 현상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인터넷을 더욱 과다 사용하거나 혹은 가족 간의 다른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원이 되어서 인터넷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한미영(2006)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대화가 단절되면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또 다른 대상을 찾으려고 하며 그 상대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특히 인터넷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이메일, 채팅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에 몰두하다 보면 부모와 대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인터넷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황정미(2004)는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가족 내 의사소통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을 비교한 결과 의사소통이 휴대폰 중독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조사되었다(유미숙, 2011). 중학생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비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친밀감이 적어 휴대폰 사용에 몰입하게 되고 따라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최은영, 2008).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사용과의 관련 연구로 전민(2012)은 대학생에게 있어 스마트폰 과빈도사용군과 저빈도사용군 사이에 의사소통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애착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문제와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하며 중독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의사소통의 매체인 인터넷 중독은 결국 핵심 의사소통 통로인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와 분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김정화, 2002; 장휘숙,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의사소통의 매체인 인터넷 사용의 중독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의 두 매체 중독에 있어 대표적인 가족환경 변인인 부모 애착과 가족 의사소통의 영향 정도를 살피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애착과 가족의사소통 수준이 단일 변인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그 영향력을 탐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모의 애착이 직접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기보다 다른 변인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이경선, 이지연, 장진이, 2013; 이현덕, 홍혜영, 2011). 이러한 매개변인의 탐색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독에 영향을 주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이후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사소통과 매체중독 간에 관계성이 높지만 그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기저에 부모와의 애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애착과 중독을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두 중독에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된 경우 자녀들은 일차

적으로 부모 및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이후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결국 과도하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부정응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가상현실 속에서의 관계형성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현실도피적인 반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수준이 높으면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예, 박화윤, 마지순, 2013).

이에 추가하여 부모 애착 중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애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성윤지, 2013). 그동안 부애착에 관련된 연구가 모애착에 비해 소홀하게 여겨졌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공하는 다른 종류의 자극은 자녀의 인지와 사회적 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성윤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과 부애착을 분리하여 두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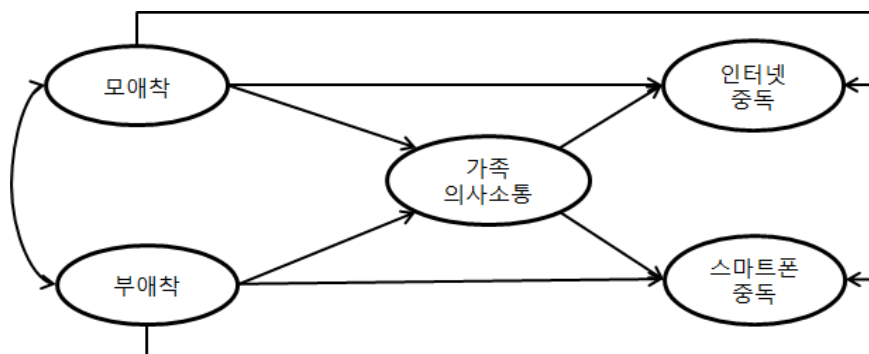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793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14~19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에서 각각 2개교씩 총 4개의 일반계 중학교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고등학교는 강북지역에 있는 3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명(중학생: 40명, 고등학생: 25명)을 제외한 72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학교 급별 성별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력

학력	성별		전체(%)
	남(%)	여(%)	
중학생	232(56.6)	178(43.4)	410(56.3)
고등학생	157(49.4)	161(50.6)	318(43.7)
전체	389(53.4)	339(46.6)	728(100.0)

2. 측정도구

모든 검사도구의 문항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이었으며 아래의 주요 측정도구 외에 인구통계학적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설문은 Likert 척도 4점 또는 5점으로 구성되었다.

1) 부모애착 척도

부모애착 척도는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활용한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모애착 척도(유성경 등, 2010)를 활용하였다(예: 우리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총 문항 수는 25개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되었다. 부모 애착 각 척도의 하위 요인은 신뢰, 부모의 의사소통, 소외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구인 중 하나인 소외(예: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신뢰 및 부모의 의사소통 구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 하위 구인간 점수의 일관성이 있도록 역코딩하여 변환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각 하위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부모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hronbach α 값은 모애착 전체 .93, 부애착 전체 .94이었으며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α)로 모 신뢰감은 .88, 모 의사소통은 .84, 모 소외감은 .84이었으며, 부 신뢰감 .89, 부 의사소통은 .88, 부 소외감은 .88로 나타났다.

2) 가족의사소통 척도

가족의사소통 척도는 Olson(2012)의 FACES IV Package에서 가족의사소통 척도(Family Communication Scale; FCS)를 선택하여 김영식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예: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사소통이라는 하나의 하위 구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가족 서로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개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α)는 .93이었다.

3)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인터넷 중독 측정도구는 Young의 중독 척도를 활용하여 신광우 등(2011a)의 청소년 인터넷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II)를 사용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척도는 국내에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척도 중 하나인 K척도(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의 간편형으로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대규모 단위로 표준화한 검사이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금단, 내성, 네 가지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기능 사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PC에 탑재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α)는 .86이었으며, 하위 요인은 일상생활 장애 .72, 가상세계 지향 .82, 금단 .50, 내성 .81로 나타났다.

4)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또한 위의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와 함께 신광우 등(2011b)이 개발하여 표준화된 간편형 청소년 스마트폰 자가 진단 설문지로 총 15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척도 또한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금단, 및 내성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내적합치도(α)는 .89였으며,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일상생활 장애 .76, 가상세계 지향 .60, 금단 .77, 내성 .69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학급의 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측정도구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는 SPSS 18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인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18을 통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각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수

주요 변인들인 모애착, 부애착, 가족의사소통, 인터넷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의 기술통계치 및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모두 모애착, 부애착, 가족의사소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애착과 가족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과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C에 내장된 인터넷에 대한 중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유사한 기능들로 인해 비슷한 성향의 청소년들에게서 한 기기에서의 중독이 다른 기기에서의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모애착	부애착	가족 의사소통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모애착	-				
부애착	.39**	-			
가족의사소통	.66**	.55**	-		
인터넷중독	-.24**	-.09*	-.22**	-	
스마트폰중독	-.17**	-.09*	-.17**	.40**	-
평균	3.56	3.15	3.55	1.87	2.13
표준편차	.62	.75	.75	.48	.51
왜도	-.15	-.16	-.28	.11	-.03
첨도	.12	.37	.35	-.64	-.07

* $p < .05$, ** $p < .01$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인 부와 모의 애착의 경우 각각 하위변인인 신뢰, 의사소통, 소외를 측정변인으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을 각각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족의사소통의 경우 10개의 문항이 한 개의 하위변인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parceling기법을 적용해 10개의 문항을 임의적으로 5개의 측정변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parceling기법은 한 하위변인의 문항 중 2~3개씩 무선적으로 묶은 후 평균을 내어 새로운 측정변인을 만드는 절차로 측정변인의 문항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널리 쓰이는 기법이다(Bandalos, 2002).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chi^2 = 415.020$, $df = 137$, $p = .000$, $TLI = .959$, $CFI = .967$, $RMSEA = .053$, $SRMR = .055$).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분석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모애착	모소외	1.000	.612		
	모의사소통	1.215	.893	.058	20.824
	모신뢰	1.192	.881	.058	20.488
부애착	부소외	1.000	.630		
	부의사소통	1.100	.834	.053	20.822
	부신뢰	1.216	.924	.057	21.240
의사소통	의사소통1	1.000	.837		
	의사소통2	.906	.849	.032	28.229
	의사소통3	1.023	.857	.036	28.673
	의사소통4	.985	.861	.034	28.924
	의사소통5	.818	.745	.035	23.187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1.000	.873		
	가상세계지향	.669	.526	.046	14.678
	금단	.544	.487	.041	13.334
	내성	1.195	.864	.052	23.077
스마트폰 중독	일상생활장애	1.000	.812		
	가상세계지향	.655	.558	.043	15.186
	금단	.807	.658	.044	18.220
	내성	1.047	.888	.047	22.254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다음으로 각 변인의 측정변인을 포함한 상태에서 주요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크게 매개변인 없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을 부모애착과 가족의사소통이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비매개모형, 부모애착이 가족의사소통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독에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모형, 부모애착이 가족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두 중독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기술했듯이 세 모형 중 부분매개모형(모형 1)과 완전매개모형(모형 2)은 CFI, RMSEA, SRMR, TLI의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델로 채택하였으며 최종 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p = .297$, $\Delta\chi^2 = 4.906$, $\Delta df = 4$).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분석

적합도	χ^2	df	χ^2 / df	TLI	CFI	RMSEA	SRMR
비매개모형	996.260	139	.000	.874	.898	.092	.202
부분매개모형	415.020	137	.000	.959	.967	.053	.055
완전매개모형	419.926	141	.000	.960	.967	.052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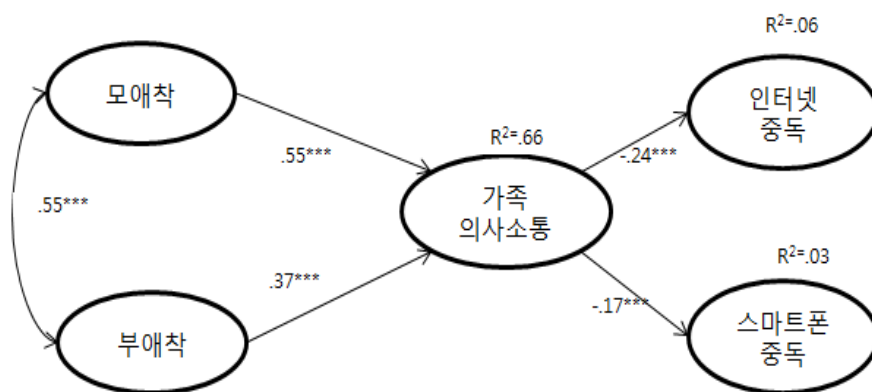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및 설명량 분석

위의 그림 2의 최종 구조모형에서 각각의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애착과 부애착 모두 가족 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사소통 수준은 다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모두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및 설명량 분석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모애착 → 가족의사소통	.832	.548***	.065	12.808
부애착 → 가족의사소통	.499	.367***	.052	9.664
가족의사소통 → 인터넷 중독	-.152	-.240***	.026	-5.855
가족의사소통 → 스마트폰 중독	-.115	-.175***	.027	-4.240
가족의사소통 $R^2=.656$				
인터넷 중독 $R^2=.057$				
스마트폰 중독 $R^2=.031$				

*** $p < .001$

부와 모의 애착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족 의사소통은 부애착과 인터넷 중독($z = -5.61, p < .05$), 부애착과 스마트폰 중독($z = -4.77, p < .05$), 모애착과 인터넷 중독($z = -6.23, p < .05$), 그리고 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z = -5.14, p < .05$)을 모두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와 모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하며 이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Z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모애착	가족의사소통	인터넷 중독	-6.225***
모애착	가족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5.138***
부애착	가족의사소통	인터넷 중독	-5.606***
부애착	가족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4.774***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애착의 정도가 가족의사소통 수준의 매개를 통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및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원활하며 결국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매체 중독에 있어 부·모의 애착이나 가족의사소통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왔으며 매체 중독 중에서도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족 관련 변인인 부모애착과 가족의사소통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영향력을 보다 포괄적인 모델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휴대폰 중독,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할수록 휴대폰 의존이 감소하고(유미숙, 2011; 전효선, 2013), 인터넷 중독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화,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부모의 애착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매개함을 밝힘으로써 애착이 중독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애착과 가족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연구되어 왔지만 휴대폰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으며 보편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과다 사용에도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쳐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결국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가진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매체와 기기에 대한 중독에 유사한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부·모애착과 미디어 매체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들에서 모애착과 부애착 모두 휴대폰 중독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신, 강문희, 2007; 이혜선, 강차연, 2007). 또한 부·모의 애착 모두 인터넷 중독과도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민경, 2012). 반면 일부 연구에서 모애착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성윤지, 2013). 그런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통해 모애착뿐만 아니라 부애착도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애착의 정도도 가족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변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사소통을 통해 부·모 애착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그 설명력은 각각 6%와 3%로 실제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의사소통의 수준이 이들 매체 중독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의 수준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애착이 의사소통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기여하는 부분보다 애착의 문제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즉 우울이나 불안, 자기통제력의 부족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중·고등학생들의 중독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가족변인이 개인 심리적 변인을 통해 매체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분리되어 이루어지던 가족변인들 즉 부모애착과 가족의사소통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유사하지만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매체 중독의 관점에서 그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중·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는 자기설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과도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 스스로는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객관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과 가족관계 변인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 매체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변인을 통합하여 접근하여 그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한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이들 매체 중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분명 이러한 조사가 병행되었다면 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때 중독의 경향이 심한지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원활하지 못한 가족 의사소통의 대안으로 학생들이 이들 기기와 매체를 활용하는지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은 일종의 행동 중독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매체와 기기를 사용하는 행동을 자주 반복하여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져 있고 이 매체를 없을 때 과도한 불안 및 초조를 경험하는 부적응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기나 매체가 전달하는 주요 내용(예: 야동, 게임, 채팅 등)에 대한 중독이라기보다는 기기 사용 자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중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후 중독의 내용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환경 안에서 부모 자녀 간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대화에 익숙해짐으로써 스마트폰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면대면이 아닌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면대면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가족 또는 또래와의 관계나 친밀감의 욕구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세계에서의 관계 맺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현실과 분리된다면 이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매체에 대한 중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의 편의성, 이동성, 오락성, 습관적 사용으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생활 패

틴이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다른 어떤 매체보다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신은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스마트폰의 주 기능인 의사소통이 오히려 면대면 대화를 감소시켜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중독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개발되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애착 형성과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3).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중독현황조사: 강북·성북지역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
- 강희양,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31(2), 563-580.
- 교육부 (2013. 7. 29). **초·중·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유현황**. 보도자료.
- 구현영, 박현숙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6(1), 56-65.
-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등 (2012). 미디어 이용 대체 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민경 (2012). 청소년의 심리적요인, 부모애착이 인터넷게임 중독과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22.
- 김서현 (2012).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343-364.
- 김영식, 신우성, 김병수, 박훈기, 옥선화, 차동혁 (2012). FACE 의 가족의사소통척도 (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241-258.
- 김정화 (2002).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범 (1999).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과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55-93.
- 박성길, 김창대 (2003). 청소년 인터넷 과다 사용의 위험요소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1(1), 84-95.
-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신, 강문희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과의 관계. **심리치료**, 7(1), 1-15.

- 박화윤, 마지순 (2013).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및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27-2734.
- 성윤지 (2013). **청소년의 소외감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현진 (1996).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을 통한 대인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이윤희, 김명찬 등 (2011a).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이윤희, 김명찬 등 (2011b).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미숙 (2011).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 비교**.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경, 박승리, 황매향 (2010).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모애착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9(1), 21-39.
- 윤주영, 문지숙, 김민지, 김예지, 김현아, 허보름 등 (20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3(2), 92-104.
- 윤지호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인터넷중독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선, 이지연, 장진이 (2013).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91-106.
- 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김현우, 신수경 (2001). 중·고교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40(6), 1174-1184.
- 이해경 (2008). 휴대폰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이현덕, 홍혜영 (2011).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관계: 외로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271-294.
- 이혜선, 강차연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 사용과 애착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79-95.

장휘숙 (2001). 애착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전민 (2012). **의사소통 불안과 우울 취약성이 대학생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종수, 고영삼, 엄나래 (2012).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

전효선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휴대폰 의존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민자 (2011). **우울, 불안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명확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현옥 (2012).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충동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영아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심리사회 성숙도와 휴대폰 과다 사용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은영 (2008). **청소년의 애착과 성취욕구가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미영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정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s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Psychoanalysis*, 39, 350-373.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Holmes, J. (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 6, 1-55.
- Olson, D. H. (2012). Guidelines for translating FACES IV Package. Revrieved from [http://www.facesiv.com/FACES IV Information/Translation/](http://www.facesiv.com/FACES_IV_Information/Translation/).
- Satir (1972).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 Science and Behavior Books.
- Walther, J. B. (199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mpersonal, interpersonal, and hyperpers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3(1), 3-43.
- Young, K. S. (1996a).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Young, K. S. (1996b).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the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h, Hyunhee* · Kim, Hyunjin*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whether levels of family communication had a mediating role between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and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728 male and female students enrolled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Seoul area answered questionnaire scales on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family communication, internet addi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finding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levels of family communic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and parent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indicated that both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affected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communication.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family communication, smartphone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투고일 : 2014. 6. 9, 심사일 : 2014. 8. 18, 심사완료일 : 2014. 9. 11

* Seoul Cyber University